

2024년 7월 21일(주일) 제1692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8월 9일(금)까지/사무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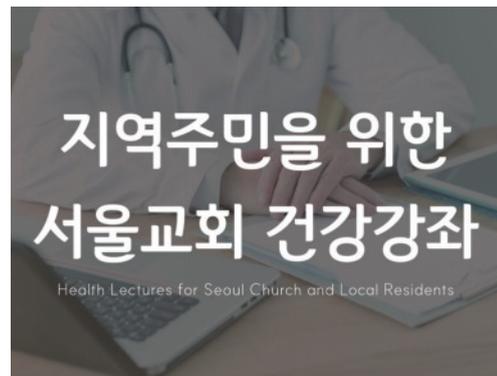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순례, 일반, 광림, 송암, 브리스길라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순례·일반 장학금은 교회 내 대학생, 광림장학금은 호산나대학생, 송암장학금은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브리스길라장학금은 신학생이 대상입니다. 광림장학생과 브리스길라장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등록된 지 1년 이상이며, **청년**

**부**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대학생을 선발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청년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청년부 및 봉사부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8월 9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5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교회 건강강좌

Health Lectures for Seoul Church and Local Residents

일시

7월 14일 ~ 8월 11일

(매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서울교회 1층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주최:서울교회 의료선교부

## 2024 여름성경학교 및 연합수련회 실시

유아·유치부: 7월 20일(토)-21일(주일), 교회

연합수련회: 7월 25일(목)-27일(토), 아가페타운

2024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는 유아·유치부, 청년부를 제외하고 연합수련회로 개최합니다. 기간과 장소는 7월 25일(목)-27일(토) 가평에 소재한 서울교회 아가페타운입니다. 교육위원회(위원장:오윤걸 장로)는 교회학교가 다 함께 찬양하며 뛰놀며 은혜의 강물

이 흘러 넘치는 시간, 뜨겁게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일정은 3면 참조)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시	주제	장소	교역자
유아부	20일(토)-21일(주일)	여호와 라파!	교회	성선혜 전도사
유치부	20일(토)-21일(주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교회	김가은 전도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25일(목)-27일(토)	ARISE!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가페타운	현종필 목사 및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청년부	8월 22일(목)-24일(토)	말씀, 3일 살기	가평 성산교회	현종필 목사

## 이번 주 건강강좌 주제 및 강사진

· 주제:우울하고 불안한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이지영 성도

현) 라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석사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인천은혜병원 진료부원장  
안산온마음센터 부센터장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대한 노인정신의학회 인증의  
EMDR 기초 심화 과정 수료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건너편으로 갑시다

눅 8:22-25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시고 배에서 모처럼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되어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와 넘치는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큰 곤욕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자는 것도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이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자는 것도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이고 빈곤과 싸우며 ‘잘 살아보자’라고 외치며 노력한 것도 건너편 세계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여러 장애물이 생기고 상상 못할 어려움들이 고통하고 갈 길을 가로막습니다. ‘도고일척(道高一尺)이면 마고일장(魔高一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한 척 높이면 마는 그 열배로 나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건너편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건너편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십니다.

밝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좀 더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야 하겠습니다.

**2.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에서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극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은 하늘도 돕고 땅도 돕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는 물이 가득 찼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많이 언급합니다.

1) 고통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창 3장)

2) 고통은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욘 23:10)

3) 주님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므로 고통을 당합니다. (골 1:24)

4) 악한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고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은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았고 세상에는 악과 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런 것들과 부딪치면서 인간의 고통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풍파 많은 세월을 지낼 때 전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듯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경에는 풍랑을 만난 배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랑에도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걷는 인생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맙시다.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이렇게 거룩하면 좋겠습니다**

### 1. 목적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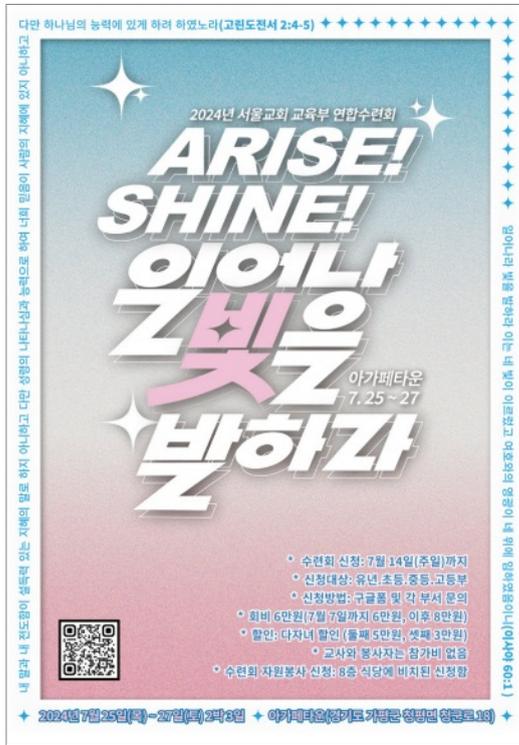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목적지가 없으면 그는 나그네이거나 방랑자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길을 가든지 먼 길을 가든지 목적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26-27절)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고, 가시려는 목적은 귀신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거라사는 데카볼리에 속한 한 도시로 규모가 적지 않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괴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이 마을에 가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했습니다. (막 5:21)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많은 사람들 중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했으니 그의 모습은 거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려고 풍랑이 심한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이렇게 거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고생의 물을 마시고 수고의 떡도 먹어야 합니다. 미국 작가 Edgar Snow는 ‘인생은 찢어진 우산을 쓰고 폭풍우 속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우산을 쓰고 폭풍우 속을 걸어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세상을 더욱

### 3. 궁극의 질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일,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이로움에 모두가 놀라며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25절). 이런 궁금증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에는 그들이 가진 거룩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시냐?’는 강력한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사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당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명처럼 외친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대답에 인생에 대한 바울의 질문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 바로 깨달아졌고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목적이 발견되고 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할지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다 높은 목적을 향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는 사람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는 인생행로가 주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 1) 찬양과 저녁집회, 기도회를 통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훈련
- 2) 풍성한 식탁 교제와 간식 푸드트럭
  - \* 푸드트럭(소떡소떡, 회오리감자)
- 3)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신나는 물놀이와 레크레이션
- 4)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질문을 해소 줄 비전특강(연령별, 주제별)/9개의 영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 이해와 나의 키워드 찾기-백승경 권사
  2. 커리어 -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방법-김기현 청년
  3. 과학자와 교수의 직업으로 나의 비전을 찾아보자-이민호 장로
  4.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오원중 청년
  5. 직업 선택-노제현 장로
  6. 건축과 디자인(이유 없는 과정은 없다)-조영제 청년
  7. 진로, 하나님의 인도-김세호 집사
  8. 하나님의 소명자, 교사-박은영 권사
  9. 음악과 하나님의 기업-최근우 집사
- 5) 공동체 레크레이션과 수련회 주제를 몸으로 움직이며 체험하는 코너학습 활동("코너 Kick!!")
- 6)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전도 영상 "미션! 전하라 굿뉴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사랑부(부장:장창수 안수집사)는 지난 7월 13(토)-14(주일), 603호와 601호에서 양정호 목사님의 지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누가복음 11:1-13)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잔치, 찬양잔치, 기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부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 간	7월 25일(목) 수련회 첫째 날	7월 26일(금) 수련회 둘째 날	7월 27일(토) 수련회 셋째 날
07:00-	부서별 참석자, 차량배정, 숙소배정	기 상	기 상
08:00-		빛나는 아침 QT (07:30-08:30)	
09:00-	교회도착 인원체크 (버스출발 09:30)	아침식사	
10:00-	이동	선택특강	비전특강 I
11:00-	여는 예배 오리엔테이션	이동시간(10분) "미션! 전하라 굿뉴스"	비전특강 II 자유시간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부서별 Activity  *푸드트럭 (~3:30)	물놀이	달는 예배
14:00-			인원점검 및 차량별 출발
15:00-	"코너 Kick!!"	물놀이	교회도착 물품정리 및 귀가
16:0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7:00-	저녁식사 (*19:00 - 집회장소로 이동시작)		
18:00-	(전체집회) 저녁집회	(부서별 연합집회) 저녁집회	
19:00-			
20:00-	셀러브레이션	셀러브레이션	
21:00-			
22:00-	야식	야식	

# 하나님의 땅 방글라데시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하나님의 소망의 땅 방글라데시와 사역 그리고 부족한 종의 가족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손달의 위임목사님, 유충기 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중보기도팀,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 \* 지금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의 라마단 금식과 고르반 이드(희생제) 명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금년에도 수많은 소와 염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글라데시의 경제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바람에 물가가 많이 올라 빈부의 차가 더 커지고, 명절은 지켜야 되니 빚을 내어 소를 사고, 고향 선물을 사는 등 많은 지출로 인해 사람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 방문길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고난의 길입니다. 교통체증에,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00 00교회의 특별한 행사

이 땅에서도 많은 가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식구들 간에 소통이 없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회복과 이를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가족사진을 찍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가족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태어난 두 가정의 아기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00교회에 속한 영·유아들과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주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또한 믿음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를 주변에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하나님의 역사로 00부족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부족 중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인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00부족을 입양한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부족민들이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마을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도 10명의 주민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와 기도회, 성경공부와 교회학교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작은 학교와 코칭 센터를 운영하여 방글라데시 말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자와 언어를 가르쳐 방글라데시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목회자와 교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금년에 드디어 첫 번째 00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2, 3의 목회자 후보생이 나타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00부족의 복음의 열매인 00와 00로를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 청년은 방글라데시 장로교회에서 세운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로 정글의 작은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00중·고등

학교로 진학하여 공부한 후 00에 있는 저희 기숙사에서 쉼표를 졸업하고 현재 방글라데시의 명문대학인 00대학교와 00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지금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 \*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틀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강사 특강과 각 교회의 현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장단기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 기도제목

1.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방글라데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화로운 나라,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2. 방글라데시 장로교회 목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며,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3. 1,000여 개의 00부족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회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준비된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카에서 대학을 다니는 00부족 청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필요한 것이 후원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14강 : 사도신경-성부 하나님(1)

###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하고 질문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무슬림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두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 곧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유지하는 데에도 동일한 분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와 실험정신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인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신이 아니다”는 명제가 참이어야 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참이면 “존재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참이어야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믿는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이거나 실험정신이 투철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란-신이 존재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든지-두 방향의 믿음 가운데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믿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사역과 성품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 23문: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1.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6.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8. 나는 성령을 믿으며, 9.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10. 죄를 용서 받는 것과 11. 몸의 부활과 12. 영생

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조는 로마교회의 세례문답 형식에서 발전된 것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들,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신앙고백의 내용을 포함하는 5개의 중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신조 전문을 내용에 따라 12개 항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과 좌정, 재림과 심판, 성령,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사도신경은 사도

들의 의해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사도적 신앙을 잘 요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도적 신앙, 또는 사도적 가르침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해 받은 가르침과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 24문: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12개의 항목을 주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2-7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8-12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하면 5개 주제로도 볼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 25문: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신앙은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신앙인 동시에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 곧 다른 종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신앙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유대교의 신앙이라면, 그 한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 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세 분 하

나님 또는 삼신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로 구별된 위격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이른바 삼위일체 방패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신성에서는 동일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위한 조건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확

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이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사도들이 한결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마 16:16, 베드로의 고백)”로, “하나님(요 20:28, 도마의 고백)”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들린 사람들 또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눅 4:41, 귀신들린 사람의 고백)”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기도가 먼저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 장로수련회

장로수련회가 8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부터 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 70인전도대 7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7.3	도르가, 루디아, 뵈뵈
7.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7.10	마리아
7.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7.17	방학
7.21	방학		7.24	방학
7.28	방학			

##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7월22일	월	전 1-6
7월23일	화	전 7-12
7월24일	수	아 1-8
7월25일	목	사 1
7월26일	금	사 2-4
7월27일	토	사 5-8
7월28일	주일	사 9-11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삿5	행9	렘18	막4
삿6	행10	렘19	막5
삿7	행11	렘20	막6
삿8	행12	렘21	막7
삿9	행13	렘22	막8
삿10,11:1-11	행14	렘23	막9
삿11:12-40	행15	렘24	막10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7월의 무더위 한가운데에서도 청량한 기쁨을 주는 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소서.
2. 7월 25일(목)-27일(토)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선교지마다 성령의 위로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전도사

박미라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훈

◇ 협동목사

양정호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 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